

이름	백채운	글쓰기 수업 분반	02분반
학번	20220236	글쓰기 담당 교수	이현정

<글쓰기-02반> PBL 보고서¹⁾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 현황 및 해결방안

한국역사학과 20220236 백채운

[목 차]

- I. 서론
- II.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저하 원인
 - 1. 슛폼
 - 2. 독서율 감소
- III.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 현황
 - 1. 통계자료
 - 2. 현역 교육 종사자 인터뷰
- IV. 문해력 저하 문제 해결방안
 - 1. 한자어 교육의 확대
 - 2. 교육 과정 내 과목 신설
 - 3. 학교 및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 V. 결론

I. 서론

최근 미디어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문해력은 언어 능력의 일부로, 사고력 향상과 인지능력 향상 등 학습 능력과 결부된 문제이다. 따라서 문해력은 글을 독해하고 매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비판적, 분석적 사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는 개인과 특정 집단뿐만 아

1) 이 글은 2023년 2학기 국민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의 4조 PBL 활동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혀둔다.

나라 전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비판·분석 의식과 참여가 필수인 가운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저하는 앞으로의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리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

이처럼 문해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최근 단어 ‘심심(甚深)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오독하는 논란이 일어났다. 한 카페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린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이를 ‘지루하다’로 오해한 일부 누리꾼들이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며 반발한 사례이다.³⁾ 이 사례 이외에도 금일, 사흘, 중식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며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해력 저하는 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 문해력’에 속하는 출생 직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문해력의 발달 격차가 심화되고 증폭되는 시기이다.⁴⁾ 따라서 성장기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기초 학력 부족이 누적된다면 학습 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 20대 학생 때부터 문해력의 기초 학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저하 현황과 그 심각성을 살펴보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저하 원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원어민(native)처럼 디지털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의미한다.⁵⁾ 즉, 정보를 접할 때 독서나 뉴스 기사와 같은 인쇄 매체보다 주로 짧은 문장만을 습득하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짧은 문장의 습득으로 인해 앞뒤 문맥 파악하며 읽기, 줄글 읽기와 같이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매체의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솟품과 독서율 감소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곧 문해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1. 솟품

미디어 매체 중 대표적인 것은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인 ‘솟품’이다. 최근 자극적이면서도 짧은 길이의 영상을 찾는 추세에 맞게 솟품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 신문사의 ‘Z세대 문해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평소 다양한 매체 중 ‘솟품’과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고,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불과 3%에 그칠 정도로 솟품의 영향력은 증가되는 추세이다.⁶⁾

실제로 솟품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틱톡은 월간 순수 이용자가 2019년 2,433만 명에서

2) 김의진(2022.07.28.),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615>(2023.12.11.)

3) 최충웅(2023.10.18.),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 문해력 저하 심각」,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53>(2023.12.11.)

4) 엄훈(2019), 「아동기 문해력 발달 격차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 『독서연구』 50, 한국독서학회, 9-12쪽.

5) “디지털 네이티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3590&cid=40942&categoryId=31630>(2023.12.10.)

6) 조현희(2023.10.19), 「문해력 저하가 ‘심심히’ 우려된다」, 『오피니언』,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19010002480>(2023.12.15.)

2022년 1억 2,045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사용자 중 70.2%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이다.⁷⁾ 숏폼의 경우, 짜릿한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하며 연속적인 강렬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논리를 따라갈 필요도 없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수동적 집중력’에 익숙해지다보니 ‘능동적 집중력’이 필요한 롱폼 콘텐츠 시청이나 독서나 대화 등을 하는 것에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다.

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과도한 중독성을 ‘마약’에 빗대어 언급했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 ‘합성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숏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숏폼 콘텐츠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능동적 집중력을 상실해가고 이에 문해력 저하라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2. 독서율 감소

이렇듯 숏폼과 같은 미디어 매체가 확대됨과 동시에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장이 담긴 책을 읽는 ‘독서’의 감소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0대 학생의 연간 대출 자료 수와 1인당 대출 자료 수를 조사한 교육통계에서는 1년 간 대출 권수가 초등학교 21.8권, 중학생 5.7권, 고등학생 3.5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에 코로나 19 이후엔 초등학교 7.3권, 중학생 2.4권, 고등학생 2.6권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⁹⁾

이처럼 독서율의 감소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각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각 학교도서관의 책 구입비로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 1.6%, 서울 1.9%, 인천 2.1%, 전북 2.5% 등 대부분의 학교가 3% 미만으로 편성하고 있다.¹⁰⁾ 즉, 문해력 저하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인 ‘도서’에 대한 관심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춘천지역 고등학생 강모(18)씨의 경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요할 때 가보면 필요한 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답해 학교 도서관 내 문제점이 드러났다. 추가로 ‘젊은 세대가 쉽고 짧은 문장을 구사하는 영상에 익숙해져서 어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디지털네이티브 세대 문해력 저하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Ⅲ.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 현황

1. 통계자료

이처럼 미디어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숏폼의 과도한 중독성 및 대중화, 독서율의 감소가 가속화되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

7) “숏폼”,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3250693693(2023.12.13.)

8) 윤이상(2023), 「숏폼 콘텐츠의 위해성과 목회상담적 치유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86, 한국실천신학회, 359-365쪽.

9) 서한샘(2023.05.29.), 「문해력 저하 이유 있었나...고등학생 1년에 책 4권도 안읽어」,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5059891\(2023.12.09.\)](https://www.news1.kr/articles/5059891(2023.12.09.))

10) 한유영(2022.09.20.), 「학생 문해력 심각한데...책 안 사는 학교들」,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42\(2023.12.11.\)](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42(2023.12.11.))

만 문해력의 경우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¹¹⁾

우선 10대의 경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미국은 69%, 튀르키예는 63.3%를 기록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인 47.4%에 한참 미달한 25.6%를 기록했다.¹²⁾ 같은 시험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의 하위권 비율이 2000년 5.7%에서 2018년 15.1%까지 상승해 한국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수준을 드러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EBS 문해력 테스트의 경우 30%가 ‘미달’수준을 기록했고 이 중 11%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¹³⁾ 특히, 문해력은 국어 과목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데, 교육부가 조사한 중고등학생의 국어 학업 성취도의 경우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2019년 77.5%에서 2020년 69.8%로, 2021년엔 64.3%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있다.¹⁴⁾

20대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한 신문사의 Z세대 중 20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7%가 ‘또래나 주변에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응답했다.¹⁵⁾ 또한, 2023 국어교육연구 제 83집에서 2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문항을 어휘 단독 문항과 문맥 기반 문항으로 나누어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평균 점수 9.37 에 미달되는 세대는 20대가 유일했으며 두 유형 모두에서 최고치는 40대, 최저치는 20대로 드러났다.¹⁶⁾

2. 현역 교육 종사자 인터뷰

문해력의 감소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은 통계자료로도 파악 가능하지만, 수행평가와 시험 등으로 문해력 저하를 가장 가까이서 실감할 수 있는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0대 교사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재직 중이며 과거 중학생 교육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20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문해력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역 교수로 채택하였다.

1) 10대 - 현역 교사

10대 교사의 경우 10대 문해력 저하 문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에 익숙해지다보니 수행평가와 같이 긴 글을 읽고 자신만의 글을 작성하는 것에 익숙치 않다. 이것의 원인은 수업 플랫폼의 변화 즉 다양한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이라고 답했다. 특히, 요즘 각종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에 따라 학생들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식별하기 위한 차원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의 경우 일상적인 줄글 대면, 독서율 증대, 교사 주도의 독서 환경 주도 등을 언급했다.

2) 20대 - 현역 교수

11) 김다솜(2022.01.11.), 「“책 안 읽는 사람을 위한 처방전” 우리나라 낮은 독서율, 문해력 높여줄 꿀팁 공개」,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375451\(2023.12.15.\)](https://www.insight.co.kr/news/375451(2023.12.15.))

12) 한상현(2023.02.20.), 「글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아이들」, 『매일 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52327\(2023.12.13.\)](https://www.mk.co.kr/news/society/10652327(2023.12.13.))

13) 김경화(2021.10.25.), 「어디까지 읽어봤니-EBS 당신의 문해력」, 『VERITAS-a』,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86\(2023.12.09.\)](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86(2023.12.09.))

14) 김현정(2023.09.26.), 「“이재명 ‘가결’뜻이 뭔가요?” 문해력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617192705977\(2023.12.14.\)](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617192705977(2023.12.14.))

15) 조현희(2023.10.19.), 「“심심한 사과?” “가결이 뭔가요?”...젊은 세대 문해력 부족 재점화」,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19010002533\(2023.12.15.\)](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19010002533(2023.12.15.))

16) 오은하 외 2인(2023), 「성인의 어휘 능력 조사 결과 분석 - 어휘 등급과 응답자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 172-197쪽.

20대 교수 역시 과거에 비해 대학생들의 비문이 증가했고 과제나 보고서를 읽을 때 앞 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뛰어난 문해력을 가진 학생은 주로 높은 독서율을 가졌다고 언급함을 통해 슬로우 리딩을 통한 독서율의 증대를 강조했다.

IV. 문해력 저하 문제 해결방안

1. 한자어 교육의 확대

현재 대한민국은 한자어 및 한자어가 포함된 어휘가 전체 어휘 중 5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로 교과서를 포함한 전문서적은 주로 한자어로 구성된 학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수의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어 한자어휘를 알지 못한다면 해독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차원에서 한자어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문과 어휘 등의 교과목의 신설, 한자어가 병기된 우리말 사전 보급 등의 방법이 있다.¹⁷⁾

2. 교육과정 내 과목 신설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만큼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육과정 내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매체 과목이 존재하지만 해당 과목은 언어와 매체의 일부로, 문해력 저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과목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이해’와 같이 문해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

또한, 문해력의 경우 국어 교과와 연관성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가 단일적인 측면만이 아닌 복합적, 융합적 측면의 능력 함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과목 역시 필요하다.¹⁸⁾

3. 학교 및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앞서 언급했듯이,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는 긴 줄글을 맥락에 맞게 해석하며 읽을 수 있는 ‘독서’의 증대가 주요한 방법이다. 여기엔 스스로의 독서 의지도 큰 요소지만, 학교 및 도서관 차원에서의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도움이 된다. 현재 학교 및 도서관에서도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1~19개까지로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독서퀴즈골든벨’과 같은 ‘일회성 행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도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교과 수업 내용과 연계되면서도 보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독서 수행을 지도·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독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우선,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독서 인프라 구축이다. 학생들이 독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독서 마일리지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는 독서활동 후 독후감을 업로드하면 독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독서 의지를 독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독서장려시스템 즉 홈페이지 구축

17) 허철(2010), 『『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 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活用度 조사』, 『한문교육논집』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22-225쪽.

18) 장은주·정현선(2023), 「초·중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관점에서 본 국어과 교육과정 매체 영역 분석」, 『청람어문교육』 92, 청람어문교육학회, 242-249쪽.

19) 이순영·송정운(2012), 「중등 학교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 『독서연구』 28(28), 한국독서학회, 297-299쪽.

도 필요하며 각종 독서 토론 클럽 운영, 독서 캠프 개최,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단체 독서토론, 열린 도서관 활동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도서관에서 최초 도입한 ‘독서인증제’의 확대보급이다. 독서인증제란 독서, 컴퓨터, 영어 등 세 분야 중에서 2가지 이상을 통과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독서 분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추천 도서 100종 중 40종 이상을 독서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고 독서에 대한 객관식 5문제 중 3개 이상을 통과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²⁰⁾

V. 결론

이 글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 현황과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 환경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공교육’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자어 교육을 확대하여 어휘에 대해 학습하고, 교육 과정 내 문해력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독려하자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 및 도서관에 확대 보급하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 글에 제시된 해결책의 경우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해당 글에서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교육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실행 중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 글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문해력 수준을 재조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문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해력’,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른 문해력을 함양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 보다 나은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20) 추가희(2015), 「국내외 독서프로그램 현황과 우리 도서관 발전방향」, 『도서관소식』 3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8-9쪽.

- 참고문헌 -

- 엄훈(2019), 「아동기 문해력 발달 격차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 『독서연구』 50, 한국독서학회, 9-36쪽.
- 오은하 외 2인(2023), 「성인의 어휘 능력 조사 결과 분석 - 어휘 등급과 응답자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83, 국어교육학회, 167-216쪽.
- 윤이상(2023), 「숏폼 콘텐츠의 위해성과 목회상담적 치유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86, 한국 실천신학회, 359-383쪽.
- 이순영·송정운(2012), 「중등 학교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 『독서연구』 28(28), 한국독서학회, 290-318쪽.
- 장은주·정현선(2023), 「초·중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관점에서 본 국어과 교육과정 매체 영역 분석」, 『청람어문교육』 92, 청람어문교육학회, 219-258쪽.
- 추가희(2015), 「국내외 독서프로그램 현황과 우리 도서관 발전방향」, 『도서관소식』 3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7-14쪽.
- 허철(2010), 『『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 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活用度 조사』, 『한문교육논집』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21-244쪽.
- 김의진(2022.07.28.),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615>(2023.12.11.)
- 최충웅(2023.10.18.),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 문해력 저하 심각」,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53>(2023.12.11.)
- “디지털 네이티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3590&cid=40942&categoryId=31630> (2023.12.10.)
- 조현희(2023.10.19), 「문해력 저하가 ‘심심히’ 우려된다」, 『오피니언』,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19010002480>(2023.12.15.)
- “숏폼”,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3250693693(2023.12.13.)
- 서한샘(2023.05.29.), 「문해력 저하 이유 있었나...고등학생 1년에 책 4권도 안읽어」,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5059891>(2023.12.09.)
- 한유영(2022.09.20.), 「학생 문해력 심각한데...책 안 사는 학교들」,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42>(2023.12.11.)
- 김다솜(2022.01.11.), 「“책 안 읽는 사람을 위한 처방전” 우리나라 낮은 독서율, 문해력 높여 줄 꿀팁 공개」,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375451>(2023.12.15.)
- 김경화(2021.10.25.), 「어디까지 읽어봤니-EBS 당신의 문해력」, 『VERITAS-a』,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86>(2023.12.09.)
- 한상헌(2023.02.20.), 「글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아이들」, 『매일 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52327>(2023.12.13.)
- 조현희(2023.10.19.), 「“심심한 사과?” “가결이 뭔가요?”...젊은 세대 문해력 부족 재점화」,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19010002533>(2023.12.15.)

김현정(2023.09.26.), 「“이재명 ‘가결’뜻이 뭔가요?” 문해력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617192705977>(2023.12.14.)